

대밭에 차씨를 심으며

한승원 소설가



굵은 죽순만 성기게 자라게 하면은
대밭이 보기 좋게 조성되고, 차나무도 잘 자랄 것입니다.
죽은 죽로차밭이 조성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해야만 합니다.

人 무살 되던 해에 소설 <마농>을 읽었다.
 —페인이 된 남자가 허영 많은 미녀로 말
 미암아 실패한 삶을 참회하듯이 진술하는 형
 식으로 된 소설이다.

그 소설을 읽고 친구에게 말했다.

“나도 마농 레스꼬같은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
 다. 미쳐서 그 여자를 따라다니다가 페인이 될지
 라도.”

그러나 나는 그 시절 나를 미치게 하는 그런 여
 자를 만나지 못했다. 그것은 다행일까 불행일까.

한 술자리에서 내 말을 들은 한 자칭 점성술사가
 말했다.

“선생님은 설사 그러한 미녀를 만날지라도 절대
 로 그러한 페인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운명에는 천칭좌(天秤座)가 들어 있어서요. 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듯 했다가 곧바로 원상으로 되
 돌아오는 균형감각을 운명적으로 가지고 태어났습
 니다.”

어찌 됐든지, 한 남자가 손에 닿지 않는 미녀를
 손에 넣으려 하는 것은 대단한 꿈꾸기이다.

‘마농’ ‘춘희’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따
 위는 창녀 소설이다. 모든 창녀 소설의 여주인공
 들은 신분상승의 꿈을 꾀다. 그들은 모두 하늘을
 머리에 인 산봉우리 끝까지 올라갔다 추락한
 다. 싱싱하고 아름다운 육체를 이용하여 상승을
 꿈꾸었기 때문에 그 육체의 시들어짐과 함께 날
 개가 꺾여 추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서 꿈꾸지 않은 것들은 없
 다. 풀도 나무도 탑도 새도 꿈꾼다. 꿈꾸기는 하늘
 하고의 교통교감이다. 예술가들 수도자, 사회운동
 가, 의료봉사자, 살아갈만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

는 고결한
 뜻을 가진 이 모든 사람들은 하늘 세상
 과의 교통교감을 꿈꾼다.

하늘은 신의 세계이고, 그 신의 세계는 지순지고
 한 완성의 세계이다. 그 하늘의 세계와 만나려면
 먼저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보통사람들의 신분 상승의 꿈

늦은 가을의 어느 북풍 맵찬 날 뻑뻑하게 들어서
 있는 대나무들을 슈아내고 차씨를 심었다. 땅바닥
 에는 대뿌리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 방 구들장도
 뚫고 들어가 죽순을 밀어올린다는 대나무뿌리들
 사이사이에.

순천의 차 명인이 일꾼들 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손수 진두지휘하여 그 일을 했고 아내는 그들의
 밥상을 차려야 했다.

앞으로 4년 동안은 부지런히 대밭 관리를 하
 지 않으면 안 된다. 초여름이면 가느다란 죽순
 들을 다 쳐내고 굵은 것들만 성기게 남겨놓아야
 하고, 잡풀들을 쳐내면서 어린 차나무를 보호해

야 한다.

“굵은 죽순만 성기게 자라게 하면은 대밭이 보기 좋게 조성되고, 차나무도 잘 자랄 것입니다. 좋은 죽로차밭이 조성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해야만 합니다.”

명인이 말했다.

“그 죽로차 몇 년 동안이나 따 잡수려고 저 꿈을 꾸시는지!”

아내가 중얼거렸다.

그렇다. 4년 저쪽의 그날, 아득하다면 아득한 세월이다. 2004년인 이 해 예순여섯이다. 이른살 되는 해의 봄부터나 그 신생 차나무에서 찻잎을 따서 덖어 우려마실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살 수 있거나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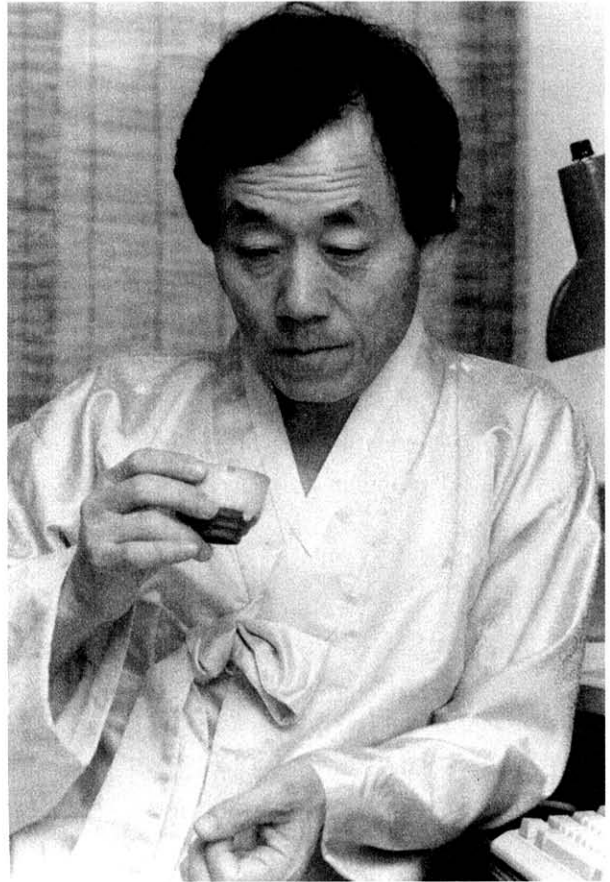
내가 조성한 차밭에서 찻잎을 따서 손수 덖어 마시겠다는 것, 배부르지 않는 그 차의 맛과 향을 즐기겠다는 것은 호사라면 호사일 터이다. 그 호사를 몇 년 동안이나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차를 한번도 못 마시고 죽더라도 나 아닌 누군가 따다가 덖어 마실 것 아닌가.”

그냥 버려진 가느다란 대밭이 질푸른 죽로차밭으로 변한다는 것은 얼마나 유쾌한 일인가. 차밭은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시공이다. 찻잎 덖는 향기 말고도 그 차나무가 초가을부터 피워내는 흰꽃은 또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로운가.

죽로차밭 만들기의 꿈

플라스틱 그릇이 나오기 시작한 이래 버려진 대



밭을 죽로차밭으로 만들기로 작정한 것은 건강과 마음의 여유로 말미암았다.

9년 전 서울을 버리고 장흥 바닷가로 낙향한 것은 건강 악화 때문이었다. 부정맥, 무력증, 숨가쁨이 나를 괴롭혔던 것이다. 한데 장흥 바닷가의 신선한 공기와 물과 바지락, 석화, 장어, 농어, 송어, 도미와 푸성귀들과 향기로운 차와 적당한 술이 나를 양생했다.

나는 해마다 봄이면 아내와 함께 친구집의 대밭에 있는 차나무 잎을 따다가 덖어 마시곤 해왔다. 그때부터 나는 우리 집 뒤란 언덕에 있는 6백 평의

대밭에다가 차밭을 조성하고 싶었다. 한데 심한 부정맥이 나를 늘 절망하게 했고 내일을 불투명하게 만들었으므로 그 꿈을 접어버렸다.

한데 캐나다에 이민 간 친구가 보내준 약이 부정맥을 신통스럽게 잠재워 주었고 그리하여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차나무가
광합성한 결과로 인한 향과
사람이 배합한 결과로 인한
사리같은 앙금의 만남은
깨달음의 범열을 도출한다.
그 범열의 결과가
세상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간다.**

4년 후에는 나도 6백 평의 죽로차밭을 갖게 된다. 차나무의 뿌리와 사람의 머리털은 같다. 차나무 뿌리는 땅 속에서 무기물과 수분을 빨아들여 잎사귀로 보내 광합성을 한다. 사람은 머리털을 통해 받아들인 하늘의 신성과 그윽함에다가 땅에 굳게 디딘 발을 통해 빨아들인 지기를 배합한다. 차나무가 광합성한 결과로 인한 향과 사람이 배합한

결과로 인한 사리같은 앙금의 만남은 깨달음의 범열을 도출한다. 그 범열의 결과가 세상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간다.

4년 후의 봄부터 나는 아내와 함께 작설차밭을 따다가 밤새도록 뒤을 것이다. 그때 내 토굴 안에서 그윽한 차향이 넘쳐날 것이다.

지상(至上)의 차향을 다신(茶神)이라고 한다. 곰곰이 차향을 몸과 마음으로 맛보기는 깨달음의 범열과 같다.

하지를 전후하여 탄 작설차밭에서 다신은 가장 잘 일어난다. 좋은 것을 독차지하면 지옥엘 간다. 차뒹는 날에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여 함께 다신제를 올릴 것이다.

그 희망에 젖어서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걷기 운동을 한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살아야 한다. 살아있는 한 건강해야 하고 그 건강으로 향기로운 글을 써야 한다.

내 죽로차밭에서 따게 될 작설차밭으로 뒤은 차처럼 향기로운 글.

꿈꾸면 삶이 향기로워지고 삶이 향기로워지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 승 원

1939년 전남 장흥 출생.

서라벌예대 문예창작과 졸업.

1968년 대한일보 신춘문예 소설 〈목선(木船)〉 당선.

저서로 소설집 〈앞산도 첩첩하고〉 〈포구의 달〉 〈내 고향 남쪽바다〉 〈새터말 사람들〉 〈해변의 길손〉 등과 장편집으로 〈불의 딸〉 〈아제아제 바라아제〉 〈해일〉 〈동학제〉 등이 있다. 현대문학상, 한국문학작가상과 이상문학상 등 수상.

조선대학교 문예창작과 초빙교수로 활동하며 현재는 전남 장흥 사촌리 울산 마을 해산토굴에서 집필 중.